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인 숙

2018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김 인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김인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 문 초 록>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 인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소재한 북쪽 1교, 남쪽 1교, 서쪽 1교, 동쪽 1교 총 4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85부가 회수 되었고, 이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한 46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임정순(1993) 제작한 것을 유윤희(1994)가 중・고등학생용으로 수정・보완하고 이규원(2017)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작한 것을 윤세은(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소영과 이양희(2011)가 개발한 청소년용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3.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자의 경우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자의 경우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 시기에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의 남·여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남·여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별에 따른 맞춤식 학교생활적응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생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개인적 상담 보다는 가족적인 접근을 통해 가족건강성을 높이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학교생활적응을 돕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3. 용어의 정의 ····· 6
(1) 학교생활적응 ····· 6
(2) 가족건강성 ····· 6
(3) 자아탄력성 ····· 7

Ⅱ. 이론적 배경 ····· 8
1.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 ····· 8
2. 학교생활적응 ····· 9
3.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10
1) 가족건강성 ····· 10
(1) 가족건강성의 개념 ····· 11
(2) 가족건강성의 구성 ····· 12
2) 자아탄력성 ····· 13
(1) 자아탄력성 개념 ····· 13
(2)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 ····· 14
4.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 15
(1)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 16
(2)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 17
(3)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 간의 관계 ····· 18
5.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 ····· 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연구방법 ····· 20
1. 연구대상 ····· 20
2. 측정도구 ····· 22
(1) 가족건강성 척도 ····· 22
(2) 자아탄력성 척도 ····· 23
(3) 학교생활적응 척도 ····· 24
3. 자료분석 ····· 25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 26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 26
2.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 27
3.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29
(1)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의 매개효과 ····· 29
(2)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31

Ⅴ. 논의 및 결론 ····· 34
1. 결과 및 의의 ····· 34
2. 제한점 및 제언 ····· 40

참 고 문 헌 ····· 42

Abstract ····· 54

부록(설문지) ····· 5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21
표 Ⅲ-2. 가족건강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2
표 Ⅲ-3.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3
표 Ⅲ-4.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4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 27
표 Ⅳ-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 28
표 Ⅳ-3.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의 매개효과 ····· 29
표 Ⅳ-4.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 31
표 Ⅳ-5.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의 매개효과 ····· 32
표 Ⅳ-6.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 33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모형 ····· 6
그림 Ⅳ-1.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 30
그림 Ⅳ-2.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 3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학생인 청소년은 2차 성장·발달하는 시기로, 신체적·사회적·인지적·정서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지적 기능획득, 도덕적 가치체계형성,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정서적 독립을 위해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되어야하는 시기이다(곽미정, 2011; 홍봉선, 남미애, 2010). 따라서 청소년기동안 발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서 적절하게 발달에 기여해준다며, 현재는 물론 미래 건강한 성인을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시기는 본격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초등학교와는 다른 환경을 맞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이다(금지헌 외, 2013; 문은식, 2012). 그러므로 중학교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적응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적응상의 어려움과 정신건강을 위협받기도 한다(김정호, 2015).

이러한 변화와 발달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적응기제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김현주, 2007). 따라서 적응은 자신과 사회 환경 간의 관계에서 환경의 요구와 조건들을 수용하여 능동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적응에 성공하면 대인관계, 정서, 직업생활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적응으로 성인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환경에 부적응이 될 경우는 학습장애, 정서장애로 이어져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비행 및 일탈문제로 이어지는 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윤혜미, 2005).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삶에서 적응은 발달선상에서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에서 제일 영향 받는 곳은 학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의 환경을 잘 적응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게 하는 곳이며(강응식, 2012), 학교는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 받는 곳이다(임성균, 2012). 학교생활에서의 바람직한 적응은 학교 이외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심리적·사회적 적응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김지현, 2014).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미래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반면 학교생활을 잘 적응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의 갈등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청소년은 더 나아가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이어진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폭력, 무단결석, 가출, 약물남용, 비행 등의 행동적인 문제로 이어져 청소년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박재산, 문재우, 2006). 이러므로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 및 부적응 현상들이 개인이나 그에 둘러싼 환경적적인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을 들 수 있는데 가족건강성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건강성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제시하고 있고(박지영, 2017),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Embark, S., 2014). 이에 가족건강성은 가정의 심리적인 분위기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 소통체계 등의 가족 간에 기능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성간의 변화와 성장 발달에 적절히 기여하는 토양이라고 했다(한병래, 방은령, 2017). 최근에는 가족연구에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김윤경, 이선정, 신효식, 2008), 이에 학계에서는 건강한 가족을 가족건강성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을 가족기능과 가족관계로 구분하고 건강한 가족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기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돕고 잠재된 능력과 강점을 살리도록 도와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족이라 했다(권대희, 오윤자, 2004; 어은주, 유영주, 1995; 허봉렬. 1996). 가족건강성은 자녀의 심리적 발달 및 학업성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했다(김현주, 이혜경, 2011; 박현진, 양혜원, 2013; 심미영, 정승현, 황금, 2013; 이지훈 외, 2013; 장성화, 최성열, 함성수, 2014).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시라는 경쟁적과 타율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 및 행동장애와 같은 병리적 심리상태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뿐만 아니라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우수경·김기예, 2013; 이해경·김수연·김혜원, 2013). 이에 청소년의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적응능력의 강조된다. 최근 이러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개인내적인 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이 주목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적절한 자아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요구에 따라 받는 긴장을 잘 참고 상황에 따라 자아통제를 조절하는 역동적인 능력을 의미하며(Block&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또한 어려운 환경이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거나 적절히 적응하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한다(Masten, 2001).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의 속성인 학업과 교사 및 교우관계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 극복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개인요인으로서 환경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한 연구(Block & Kremen, 1996; Klohnen, 1996; Luthar, 1991; Masten, 2001)들이 있다. 즉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으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잘 적응 하고(고은미, 2011; 구자은, 2000; 서미화, 2008), 또한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친구수와 학업성취도가 달라지나(이미라, 2000; 이지훈, 2012; 장연정, 2002),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은 아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도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스트레스로 받기 때문에 심할 경우엔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한다는 선행연구(이쌍이, 2011)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인 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탄력성과 가정요인인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 요인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우울(김미정, 2013; 나미나, 2010: 김명식, 2009; 김산옥, 2012) 혹은 스트레스(김미정, 2013; 나미나, 2010: 고은미, 2011; 김민정, 2005; 이예승, 2004; 홍은미, 2015)등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을 다룬 연구(김문선, 2013; 김민수, 2013; 김현주, 2015; 안혜미, 2010; 임하라, 2013)가 있다.

특히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 요인을 가지고 연구한(김경은, 2010: 양점미, 2010) 것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이 아동기를 대상으로 다루었고, 청소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리고 두 요인을 포괄하여 가정을 연계하여 학교생활적응문제를 분석한 연구도 드물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언(김옥선, 2005;, 이인수, 2006; 임정아, 2005)과 다양한 매개 요인을 가지고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언(김경은, 2010; 김정옥, 2018; 라아영, 2016; 이명심, 2014)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매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편 중학생 시기에는 남・여의 차이가 초등학교 때보다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강현아, 우석진, 강현주, 2012: 이지언, 정익중, 2013). 또한 중학생시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과정이나 사회화 정도가 서로 현저히 달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성별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별과 관련된 연구는 학교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성순옥, 2013),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한다고 한 연구(Crump & Simons-Morton 2003), 남아와 여아에 따라 또래관계의 형태가 다르고 그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고혜진, 2003),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나며,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니의 지지에 의해 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적응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한 연구(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이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증명한 연구(김경은, 2010)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남·여 성별로 어떻게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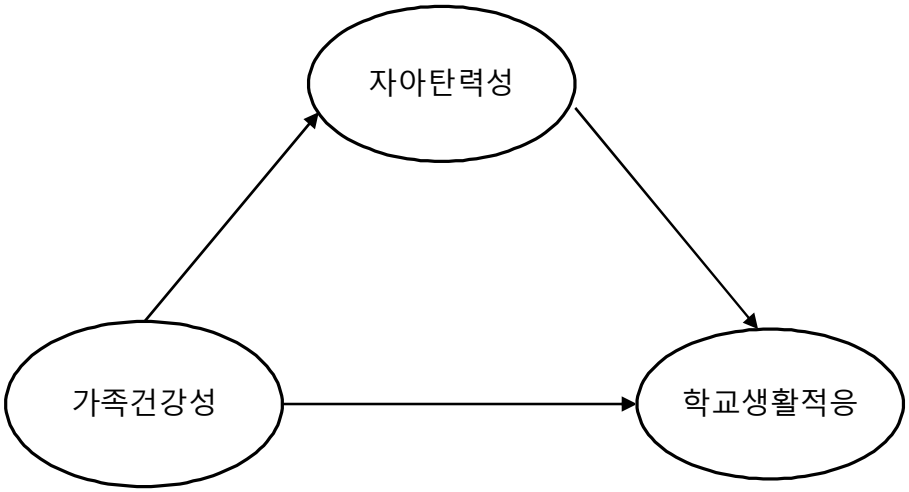
가설 1-1.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어떻게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가설 2-1.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남자경우는 완전매개, 여자의 경우는 부분매개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성별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Ⅰ-1>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Ⅰ-1>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

(1)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학교생활적응에서 적응은 본인이 욕구 및 갈등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김명일, 임경미 2013).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학교환경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서 학교환경과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조화롭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시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박윤순, 2010).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을 유윤희(1994)가 중・고등학생용으로 수정・보완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이규원(20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2) 가족건강성(Family healthines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원 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 수행하며, 가족의 공동체적・정서적・도덕적인 자질을 향상하도록 도모하고, 그리고 가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발전 것을 의미한다(어은주, 1996). 또한 가족원들의 각개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이웃친족이나 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유영주, 2004).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은주・유영주(1995)가 제작한 것을 윤세은(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자아탄력성이란 내적 및・외적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격유형이다(Block & Block, 1980). 또한 당사자의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Rutter, 1979).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소영과 이양희(2011)가 개발한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RSA: 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주요환경 중 하나인 학교는 가족외의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의 배움을 통해 자신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며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는 제 2의 성격형성의 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그들의 삶을 적응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성인기 들어서 다양한 환경을 적응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김혜례, 최승희, 2009). 학교생활적응에는 학생들의 지적능력이나 가정의 조건보다는 교사와의 교유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적응, 교사-학생, 교우, 학습활동, 학습활동과 수업에 잘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규칙 준수 등에서 자기 욕구를 잘 적응하는 청소년기 이후에도 조화롭고 적절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였다(Rutter. 1987). 학교생활을 잘 적응된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에서 상호작용 시 청소년이 겪게 되는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해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은 신체적・생리적인 변화와 정서의 불안정으로 적응이 순조롭지 못하며, 가정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김관희, 1997).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 절망, 소외감, 불평, 불만을 느끼고 소극적이 되고(권복순, 이경은, 이성희, 1997), 우울증・강박증・대인예민성이 높아져 자신감이 결여된다(김기하, 1998). 또한 학교생활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는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가정과 학교생활에도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민정, 2005). 그러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 중퇴로 이어지거나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부적응을 유발하기 쉽다(유연승, 199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으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바꿔 수용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학교와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현재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성인기 있어서 사회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교생활에서 적응은 중요한 발달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생활적응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발달 시기로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장래 독립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에 필요한 발달과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서 필요한 발달과업은 주로 학교라는 조직에서 형성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청소년은 성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습득되고, 사회적 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학교생활은 청소년 발달과 성장을 이끌어 주며,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은 중요한 논점이 된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양한 성격 및 요구 사이에서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시키는 학교 순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pencer, 1999). 즉 학업적·사회적·정의적 적응측면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거나, 물리적·심리적으로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현실적· 내현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행동(문은식, 2012)이라 할 수 있다. 또는 학생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수업, 친구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학교환경 등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여 잘 대처하게 하거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인식하는 생활만족, 인간관계 만족, 학업에 대한 만족에 대한 자기평가(정행준, 2011)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바꾸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정규 교육과정과 교사와의 대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학교규칙 준수 등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과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들이 정서적·신체적·사회적·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성장하는데 있어 초석이 된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교환경을 적응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즉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이는 학교생활의 만족으로 연결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권용신, 백경숙, 2004), 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학교생활(김용래, 2000; 김지현, 2014),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칙준수, 학교환경 지각(구자은, 2000; 김승미, 1998),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이규미, 2005)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을 유윤희(1994)가 중·고등학생용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중학생용으로 수정한 이규원(201) 것으로 들고 왔으며, 권용신, 백경숙(2004)의 연구 중심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인적환경을 알아보는 교사·교유 관계와 자율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공부태도, 자유를 구속하는 학교규칙을 가진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3.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건강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가족건강성의 개념

가족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사회 집단이며, 개인에 있어서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필수 부분인 환경이며 조직이다. 즉, 가족은 가장 작은 사회 집단으로 인류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해 온 사회의 최소단위이면서 가장 긴 역사를 가졌다. 가족은 국가나 민족의 구조와 형태 또는 생성과정 등에서 차이가 있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한 국가 속에서도 사회가 발전하고 변천함에 따라 가족의 현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대다수의 가족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변화와 갈등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의 더욱 중요해지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은 1962년 미국의 가족학자 Otto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래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 건강에 적용에 적합하고 익숙한 개념이다. 건강이란 튼튼함, 몸에 병이 없음 인데 WHO(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행복(well-being)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유영주, 2002). 그리고 건강 가족적 관점에 기초한 개념인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의 병리적, 부정적 측면보다 가족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개인과 가족을 개방적인 체계가 구성되었으나 어느 한 쪽만 강화된다고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어은주, 1996).

Olsen과 DeFrain(2003)는 건강 가족적 관점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로 체계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강조하며, 둘째로 개인과 가족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셋째로 가족체계의 세 가지 주요 차원은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이며 넷째로 각 차원별로 역동적인 균형(dynamic balanced)을 추구한다. 건강가족에 대한 정의는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Williams(1985)는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강조하고, 가족집단과 개별적인 가족원들이 잠재적인 발달을 북돋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며,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만족스럽고 충만한 상호작용을 도모하며, 대인관계 기술과 능력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특징, 스트레스와 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족능력에 기여하는 관계 패턴으로 건강가족을 언급하고 있다.

가족건강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크게 사회 심리적 관계와 가족중심 개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건강가족은 가족의 사회 심리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즉,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과 성취와 더불어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감이 균형 있게 유지되는 관점이다(권대희, 오윤자, 2004). 둘째로 가족중심 개입은 가족이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수용하고 지원하고 가족 스스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족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는 관점이다(손유니, 2002; 윤종희, 2006).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Bloom(1995)은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상황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적인 사회성을 지지하는 가족을 기능적인 가족으로, Beaver & Hampson(1990)은 가족들이 체계 속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가족 전체가 훌륭한 문제해결능력을 나타내며, 각 가족성원들의 개성이 개발되며, 가족원간에 경계선도 명확한 가족을 최적의 가족으로, Russell와 Sprenkl(1983)은 가족의 적응력·응집력과 가족의 기능수행이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적인 상태인 가족을 균형 잡힌 가족이라 정의하였다.

(2) 가족건강성의 구성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유영주(1991)의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가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건전한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용어가 변화되었고, 건강가정을 건강가족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설명하고 있다(유영주, 1994). 가족관계차원에서의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함으로써 가족체계 내에서의 개인 및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이성휘, 2008).

국내 연구에서 가족 건강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도덕적 관계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으로 건강가족을 정의하였고(어은주, 유영주, 1995), 허봉렬(1996)은 가족의 기본적인 목표란 가족의 공동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족구성원의 정서적인 안식처로 제공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다. 가족의 전체적인 조직이 기본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을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족건강이란 강한 가족, 정상적인 가족, 균형적인 가족, 기능적 가족, 최적의 가족, 건강한 가족, 건전가정 등의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친밀한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가족원간의 대화를 나누며, 문제와 위기 발생 시 가족원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잘 해결하고, 가족만의 가치관이나 규범, 규칙 등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으로 가져왔다.

2)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 개념

인간은 대부분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 때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성장 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목 되는 개념이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처하는 성질이라고 하였으며,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더라도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Garmez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83). 또한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외적·내적 스트레스원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Block, 1980), 그리고 적응을 위협하는 외적 자극으로부터 적응을 유지하는 잠재적 전환하는 기회의 근거로 정의하였다(Rutter, 1979). Fine(1991)은 자아탄력성을 하나의 성격유형으로 정의했으며,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에 민감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다고 하였고, Masten(2001)은 발달이나 적응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good outcome)로 특정 짓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울 등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Fredrickson, 2003). 그리고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으로 오는 신체이상 반응에서 회복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빠르며, 이러한 신체반응의 회복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매개한다고 하였다(Fredrickson와 Tugade, 2004). 그리고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은 친구들에게 놀림 당하더라도 평정을 바로 찾으며, 새롭고 특이한 상황을 잘 다루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lock, Kremen, 1996).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활기차며,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좋아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여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꼈을 때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나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잘 적응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러므로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에게 있어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적응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 내적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응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위기나 역경을 잘 견디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주요한 개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성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타나는 요소들은 낙천성, 자율성, 능동적인 활동 및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다. Block 과 Block,(1980)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은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융통성과 통합된 수행. 둘째, 성격 안정성, 셋째, 자신감, 넷째, 학교와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 다섯째, 또래관계, 여섯째, 인지능력 등이다. Klohnen(1996)의 연구에서도 자신감 있는 낙천성, 생산적인 활동성,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그리고 능숙한 자기표현기술 등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이라고 보았다. 이해리와 조한익(2006)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척도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을 측정하고, 개인적 특성과 외적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도 측정하면서 탄력성을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자아상과 높은 자기효능감 및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능력을 갖고 정서적 안정 및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문제해결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에 적극적인 적응하고 대처하는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특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소영과 이양희(2011)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개발한 청소년 탄력성 척도에서 제시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을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탄력성(resilience)은 '역경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으로서 청소년들이 생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긍정적으로 발달·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 기술과 태도들, 능력들을 밝히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된 수행능력과 적응적인 융통성 등 개인적·인지적 영역에서 문제 해결 책략 차원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은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지적 기능과의 관련성 또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역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Masten, 2001; Rutter, 1990).

4.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같은 정서적 영역에서의 발달 과업은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이춘재, 1988). 즉, 청소년의 적응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는 가족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가족집단의 특성을 배제한 채, 청소년의 문제와 해결점을 분석하기는 힘들다(양순미, 유영주, 2003). 또 김미숙(2005)과 김윤경(2010)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생활수준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가족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가족원에 대한 존중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유대의식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족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할수록, 가족 간 감사와 애정 정서를 많이 가질수록,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할수록, 학교적응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가족건강성과 긍정·부정 정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도,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가족건강성 전체는 학교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선, 2011).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를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 행사로 구분하고, 가정의 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옥선, 2005).

또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교생활을 더 잘 하게 되며(진석언, 2010),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환경적응 이 높았다고 하였다(남영자, 2008). 청소년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촉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불안, 우울, 비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아, 2005).

한편, 양부모가정의 자녀는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홍성애, 1998), 부모가 한쪽 또는 양쪽이 없는 경우의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건강성이 낮고 학교생활적응에도 문제 있다고 하였다(김보경, 2001; 박연수, 2003; 이춘오, 2006), 가족의 구조적 특성도 학교생활적응과 가족건강성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이 가족건강성에,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긴밀한 관련성을 있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가족에 있어서 부모와의 양육태도,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등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건강한 가족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생활의 만족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개인 요인인 자아탄력성을 통해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생활적응과 가족건강성과 간의 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가족건강성이 높으면 학교생활적응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 된다.

(2)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구자은(2000)은 자아탄력성을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 보고, 자아탄력성이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은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유연하면 학교 행사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과 학습활동규칙 준수을 잘하고(서미화, 2008),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유능하며(반금남, 2008), 자아탄력성은 교사, 교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인관계를 주요 구성요인으로 하는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은미, 2011).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개인적 요인으로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가진 청소년은 학교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할 뿐 아니라 스포츠, 드라마, 음악 등에서도 뛰어나다고 알려지고 있다. Lewin(1936)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이나 또래 및 교사의 물질적 혹은 정서적인 지지를 얻게 되어 학교생활에 더욱 더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상황적 요구에 맞는 행동과 문제 해결능력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 교사 및 또래지지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잘 이끌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높여 주는 것이다(고은미, 2011; 송영경, 2006; 이은영, 2009). 다시 정리하면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친구가 많아지고(이미라, 2000; 이지훈, 2012; 장연정, 2002), 학교수업에도 적극적이 되어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조명주, 2007).

이에 반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학교 환경이나 외부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할 경우엔,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쌍이, 2011).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긍정적인 태도로 현실을 수용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자기통제를 하고, 갈등적인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자아탄력성은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이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적절한 정서표현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3)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 간의 관계

최근 들어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되고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건강성은 자녀의 심리 및 발달에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의 변인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은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건강한 결혼생활, 긍정적인 가정의 특성 즉,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보모의 높은 이해수준과 부모와 아동의 친밀성과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지지라고 하였다(강기숙, 2001; 김성수, 2006; 전은희, 2008).

또한 자아탄력성 형성에 가족 간의 친밀감과 화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수, 노성덕, 200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가족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건전한 가족이라고 지각할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김민선, 2006). 한편 자녀가 지각한 부모 간 갈등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은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 주었다(고영희, 2010; 이윤주, 민하영, 이영미, 2004;).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돌보고 자녀의 문제나 걱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대화하기를 즐길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간섭하는 일을 적고 과잉보호하는 일이 적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은미, 2002). 또한 가족의 건강성 하위요인들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간의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특히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가치체계 공유요인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강희경. 2006). 이은희과 조계연(2007)은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들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의 내재와 문제가 감소된다고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가족환경이 가족구성원 간에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있고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관계를 잘하고 있고, 남학생은 교우관계와 학교수업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지은, 2010). 자아탄력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감정조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영순, 2012; 이숙영, 2010; 차은주, 2010). 가족건강성은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니의 지지에 의해 학교적응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한 연구(구자은, 2000)은 있으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 자아탄력성 통합으로 남·여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에 거주한 중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매개하는지 규명하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북쪽 1교, 남쪽 1교, 서쪽 1교, 동쪽 1교 총 4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의 중학교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실시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교감선생님 외 담당 교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시간은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48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하고, 총 46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222명(48.1%), 여학생 240명(51.9%)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68명(36.4%), 2학년 117명(25.3%), 3학년 177명(38.3%)으로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교성적은 중위권이 241명(5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이 129명(27.9%), 하위원이 89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49명(5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136명(29.4%), 대학원 졸업이 58명(12.6%), 중학교 졸업이 7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44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160명(34.6%), 대학원 졸업이 43명(9.3%), 중학교 졸업이 4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258명(55.8%)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상위권이다'가 129명(27.9%), '상위이다'가 36명(7.8%), '중·하위이다'가 33명(7.1%), '하위이다'가 4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62)

	구분	N(=462)	구성비율(%)
성별	남	222	48.1
	여	240	51.9
학년	1학년	168	36.4
	2학년	117	25.3
	3학년	177	38.3
학교성적	상위권	129	27.9
	중위권	241	52.2
	하위권	89	19.3
	결측값	3	0.6
아버지 학력	중학교졸업	7	1.5
	고등학교졸업	136	29.4
	대학교졸업	249	53.9
	대학원졸업	58	12.6
	결측값	12	2.6
어머니 학력	중학교졸업	4	.9
	고등학교졸업	160	34.6
	대학교졸업	244	52.8
	대학원졸업	43	9.3
	결측값	11	2.4
경제수준	하위이다	4	0.9
	중·하위이다	33	7.1
	보통이다	258	55.8
	중·상위이다	129	27.9
	상위이다	36	7.8
	결측값	2	0.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측정도구

(1)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을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가족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어은주, 유영주(1995)가 제작한 것을 윤세은(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가족원간의 유대경향'의 Cronbach's α는 0.929, '가족원의 의사소통 경향'의 Cronbach's α는 0.933,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의 Cronbach's α는 0.905, '가족의 가치체계공유'의 Cronbach's α는 0.895, '가족건강성 전체'의 Cronbach's α는 0.978로 나타났다.

<표 Ⅲ-2> 가족건강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62)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가족원간의 유대경향	10	2, 5, 9, 14, 18, 21, 24, 27, 31, 33	.929
가족원의 의사소통 경향	9	1, 4, 8, 13, 17, 20, 23, 26, 30	.933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6	3, 6, 10, 15, 19, 28	.905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9	7, 11, 12, 16, 22, 25, 29, 32, 34	.895
전체	34		.97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소영과 이양희(2011)가 개발한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RSA: 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11문항), 문제해결능력(6문항), 부정적 감정의 인내(6문항), 학업적 유능감(4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의 Cronbach's α는 0.889, '문제해결능력'의 Cronbach's α는 0.879, '부정적 감정의 인내'의 Cronbach's α는 0.883, '학업적 유능감'의 Cronbach's α는 0.840, '자아탄력성 전체'의 Cronbach's α는 0.958로 나타났다.

<표 Ⅲ-3>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62)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11	1, 2, 3, 4, 5, 6, 7, 8, 9, 10, 11	.889
문제해결능력	6	12, 13, 14, 15, 16, 17	.879
부정적 감정의 인내	6	18, 19, 20, 21, 22, 23	.883
학업적 유능감	4	24, 25, 26, 27	.840
전체	27		.95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학교생활적응 척도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을 유윤희(1994)가 중·고등학생용으로 수정·보완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이규원(20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척도는 교사에 대한 호감과 인정, 존경심, 교감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 교사관계(5문항), 친구들과의 교감의 정도, 어울림, 인기도 등을 측정하는 교우관계(5문항), 수업시간의 유익함, 숙제, 질문, 이해도 등을 측정하는 수업태도(5문항), 학교 내에서의 질서, 규칙, 청결, 시설물 사용 등을 측정하는 학교규칙(5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기보고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교사관계'의 Cronbach's α는 0.820, '교우관계'의 Cronbach's α는 0.874, '수업태도'의 Cronbach's α는 0.880, '학교규칙'의 Cronbach's α는 0.814, '학교생활적응 전체'의 Cronbach's α는 0.918로 나타났다.

<표 Ⅲ-4>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62)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교사관계	5	1, 2, 3, 4, 5	.820
교우관계	5	6, 7, 8, 9, 10	.874
수업태도	5	11, 12, 13, 14, 15	.880
학교규칙	5	16, 17, 18, 19, 20	.814
전체	20		.91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학생이 남·여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주요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의 전체 평균은 3.93점, 자아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3.93점,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평균은 3.87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가족원간의 유대경향(M=4.08, SD=.735)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가족의 가치체계공유(M=3.75, SD=.764)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M=3.99, SD=.654)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부정적 감정의 인내(M=3.85, SD=.750)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학교규칙(M=4.07, SD=.694)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수업태도(M=3.68, SD=.833)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의 정규 분포 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 값이 3미만으로, 첨도의 절대 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야 한다(배병렬, 2011).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을 살펴보면 왜도의 절대 값은 0.13에서 0.93, 첨도의 절대 값은 0.01에서 1.32의 범위로 나타나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N=462)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반응척도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경향	4.08	.735	-.93	1.32	1-5
	가족원의 의사소통경향	3.90	.764	-.72	0.76	1-5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3.96	.757	-.79	0.85	1-5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3.75	.764	-.39	0.35	1-5
	전체	3.93	.727	-.72	0.97	1-5
자아탄력성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3.99	.654	-.29	-0.37	1-5
	문제해결능력	3.94	.713	-.24	-0.48	1-5
	부정적 감정의 인내	3.85	.750	-.15	-0.73	1-5
	학업적 유능감	3.90	.777	-.35	-0.33	1-5
	전체	3.93	.647	-.13	-0.59	1-5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3.70	.764	-.39	0.26	1-5
	교우관계	4.04	.712	-.54	0.45	1-5
	수업태도	3.68	.833	-.40	-0.01	1-5
	학교규칙	4.07	.694	-.89	1.30	1-5
	전체	3.87	.594	-.37	0.56	1-5

2.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들(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462)

	변인	1	2-1	2-2	2-3	2-4	2-5	4
1	가족건강성	1						
2-1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569**	1					
2-2	문제해결능력	.545**	.795**	1				
2-3	부정적 감정의 인내	.526**	.719**	.781**	1			
2-4	학업적 유능감	.525**	.761**	.803**	.800**	1		
2-5	자아탄력성 전체	.596**	.786**	.812**	.806**	.794**	1	
4	학교생활적응	.490**	.624**	.626**	.604**	.596**	.672**	1

**p<.01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는 정적 상관(r=.569, p<.01)을 보였고,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문제해결능력은 정적 상관(r=.545, p<.01)을 보였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부정적 감정의 인내는 정적 상관(r=.526, p<.01)을 보였고,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학업적 유능감은 정적 상관(r=.525, p<.01)을 보였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은 정적 상관(r=.490,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최종단계인 매개모형 분석에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중학생의 남·여 성별로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1)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의 매개효과

연구대상 중,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전체 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1>과 같다.

<표 Ⅳ-3>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351	120.190	.564	.051	.595	10.963***
2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182	49.957	.396	.056	.431	7.068***
3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419	80.345	.063	.059	.069	1.081
	자아탄력성				.589	.062	.608	9.5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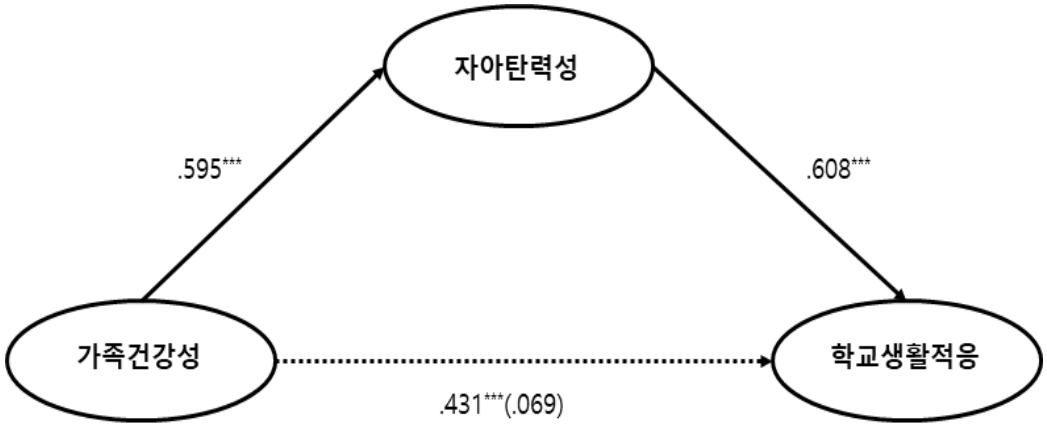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595,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431,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남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β=.069, p>.05), 매개변인인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608, p<.001). 이 때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남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Ⅳ-1>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의 완전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또한 다음의 <표 Ⅳ-4>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Ⅳ-4>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매개효과 (Z-value)
가족건강성	→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7.206(.000)

$^{*}p<.05$, $^{**}p<.01$, $^{***}p<.001$

Sobel-test 분석 결과, 남학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Z=7.206$,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대상 중,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Ⅳ-2>와 같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593$,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540,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Ⅳ-5>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349	127.790	.506	.045	.593	11.304***
2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289	97.149	.402	.041	.540	9.856***
3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499	119.054	.150	.042	.201	3.529***
	자아탄력성				.498	.050	.571	10.007***

***p<.001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여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201, p<.001), 매개변인인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571, p<.001). 이 때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3단계에서도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Ⅳ-2>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전체의 부분매개효과

또한 다음의 <표 Ⅳ-6>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Ⅳ-6>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매개효과 (Z-value)
가족건강성	→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7.456(.000)

$^{*}p<.05$, $^{**}p<.01$, $^{***}p<.001$

Sobel-test 분석 결과, 여학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Z=7.456$,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논의 및 결론

1. 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제주지역에 위치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각 1교씩 총 4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485명 대상으로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및 누락된 답변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한 462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으로 각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변인인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보면 .525~.569에 이르기까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전체 간에도 .596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전체 간의 .490으로 정적상관을 보였다.

첫째, 가족건강성 전체는 자아탄력성 전체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건상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연구(구자은, 2000; 김민정, 2005; 안지영, 2015; 이예승, 2005;)와 일치했다. 조손가정 중학생 및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곽민경, 서보준, 2011),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활적응도 잘한다는 연구(고근종, 2006; 송영경, 2006)와도 일치했다. 민동일(2007)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고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흥미와 관심의 영역이 다양하고, 감정조절능력이 발달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강한 가족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일수록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려움과 스트레스 등 접하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생활 중에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체적, 인지적 변화로 생기는 불안과 갈등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중요한 변인임 입증했다.

둘째, 가족건강성 전체는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건상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명심(2015)과 이혜경(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장성화, 최성열 및 함성수(2014)의 가족 간의 긍정적 생각과 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정적인 관계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김혜래, 최승희(2009)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도 일치했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학생은 건강한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원만히 이어지게 하는 근원이고, 가족건강성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이는 부적응의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의 문제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현주, 이혜경, 2011).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의 탄력성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으로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의 남·여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전체 변인이 어떻게 매개역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고 이를 도식화된 <그림 Ⅳ-1>에 의한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및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도 모두 유의하였고, 매개효과에 있어서도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완전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 잘 적응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이미라.200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수업과 교사에 대해 높은 적응수준이 보이는 연구(이미라, 2000;, 윤영석, 2011), 학교수업,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학교생활에서 만족한다는 연구(최미선, 2005; 홍은미, 2014)와도 일치했다. 구자은(2000), 김민정(2005), 이예승(200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 한다는 것과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의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가족유대가 자아탄력성을 높이면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잘 적응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남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이 건강하게 여겨지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정서유지 및 자아통제를 잘 하게 된다면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완전 매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고,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사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긍정적 일 때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자아탄력성은 학업과 관련된 상황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삶의 과제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 영향을 주고, 자아탄력성을 통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학교생활적응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중학생의 남자의 경우는 만족한 학교생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건강 할 때 남학생의 개인 심리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건강한 가족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으로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결과는 <표 Ⅳ-5>과 같고 이를 도식화된 <그림 Ⅳ-2>에 의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및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도 전부 유의하였고,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부분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성별로 구분하여 연구된 연구를 보면 학교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성나미(2016)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친구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자아탄력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김양숙, 1995)는 연구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가족들과 상호의사교환에 능하고 대화로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특유의 성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관계지향적일 것을 더 많이 요구하는 가정건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자의 경우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학생이 가족건강성이 긍정적으로 지각 할 때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높게 나타나지만 가족건강성이 그렇지 않을 때는 학교생활적응 수준도 낮게 나타난다. 즉, 가족의 건강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건강성 측면에 관심을 갖고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가족관계에서 건강한 가족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아탄력성은 가족에게서 받는 영향을 완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켜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낮추는 보호기제로 작용하여 가정 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휘하여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 등 여학생이 접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여학생의 심리적인 충족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면, 스트레스 발생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서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이로서 여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킨다면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다.

이러한 매개효과 분석한 결과 종합해 보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도 높고 학교적응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 간의 애정과 신뢰가 있고 의사소통을 잘하며 일상생활의 문제와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족의 청소년은 삶에 대한 낙관성과 호기심이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학교생활적응력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여 청소년의 위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와, 가족건강성과 스트레스 대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조계연, 이은희, 2007).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 잘 하며(송영경, 2006), 학교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 및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예승, 2004).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가족관계안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촉진하여 동일한 학교생활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를 조절하여(Block & Kremen, 1996)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하여 경직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빨라진 사춘기의 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긍정적 증진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프로그램, 자신감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개인의 내적 요인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창의인 탄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지지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남·여 성별로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청소년이 갖고 있는 많은 변화들과 어려움은 가족의 지지와 높은 자아탄력성으로 잘 극복하여 학교생활적응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부모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자아탄력성 매개로한 결과 남학생은 완전 매개효과 여학생은 부부 매개효과로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과 신체발달과정을 갖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성차에 따라 다르고, 사춘기 접어들면서 성차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성별을 고려하여 그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차별화된 개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변인으로 가정환경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부모교육 및 상담, 학교생활적응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중학생에게 학교와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학생에게 학교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가족 요인, 학교 요인, 개인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점을 수용하여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 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넷째,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을 거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적응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잘 못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적 개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탄력성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증진시킨다면, 학교생활적응이 낮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리고 남·여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다르다는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남·여 차이를 이해하고 성차에 따라 맞춤식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개인적 상담이 진행되기보다 가족적인 접근을 통해 가족건강성을 높이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 할 수 있다.

2.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462명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하는 질적 연구나 설문조사 외에 행동관찰이나 개인적 면담 등과 같은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남·여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남·여 성별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들의 개인적변인, 심리적변인, 학습과 학업성취도의 연구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양한 연구들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자아탄력성 남·여 성별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만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남·여 성별로 자아탄력성 증대시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대상이 제주도 한 지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편중되지 않은 샘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 중학교에서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강응식 (2012). 청소년(14 - 15세)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창실 (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현아, 우석진, 강현주 (2012). 가정외보호아동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50**(5), 25-38.

강희경. (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고근종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희 (2010).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은미 (2011).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혜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능력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미정 (2015)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하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곽미정, 문신용 (2011). 생태체계적 요인이 청소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3), 215-246.

곽민경, 서보준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21**(1), 5-112.

곽민경, 서보준 (2011).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대구광역시 조존가정 청소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21**(1), 75-1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구본용 (2012).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관계에서 부모, 교사,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347-373.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대희·오윤자(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권복순, 이경은, 이성희 (1997). 학교부적응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실천. **사회복지개발연구. 3**(2), 93-109.

금지헌,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정 및 개인변인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119-143.

김경은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김경은 (2010).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관희 (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하 (1998).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식 (2009).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치료학회지, 1**, 53-67.

김명일, 임경미(2013).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사회참여가 가지는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65-91.

김명주 (2009).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선 (2013).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삶의 만족도가 1년 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선 (2011).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가족건강성과 긍정·부정 정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미숙 (2005).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김미정 (2013).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향 (2011). **중학생용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선 (2006).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이점발견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 (2001). **이혼가정의 학교 가정 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산옥 (2012). **청소년기 학교스트레스와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수 (2006).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연구회. 9,** 145-170.

김승미 (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영 (2011). **부모 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숙 (1995)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형태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옥선 (2005).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선 (2005).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원 박사학원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윤경 (2010).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경, 이선정, 신효식 (2008).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생활과학연구, 18**, 116-125.

김정수, 노성덕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21,** 153-172.

김정옥 (2018).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호 (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생-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정서지능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중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은 (2010).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 학교 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지현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이혜경 (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가족과 문화, 23**(1), 77-104.

김혜래, 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0,** 159-182.

나미나 (2010).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라아영 (2016).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변인의 탐색적 고찰. **교육발전논총, 23**(1). 2153-2167.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금란 (1998). **불안 및 귀인성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수 (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순 (2010).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산, 문재우. (2006).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내 갈등과 건강보호 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인과관계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2), 91-107.

박지영 (2017). **가족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의 가족건강성 비교 연구 : 부산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진, 양혜원 (2013).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학회, 15**(1), 257-278.

백경숙, 권용식 (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6**(2), 87-99.

반금남 (2008).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병렬 (2011). **Amos19 구조방정식 모델링 -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서미화 (2008).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미나 (201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49-70.

성영순 (2012).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자아탄력성 및 성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유니 (2002). **능력강화를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스와 자기효능감과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신지체학교 초등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영경 (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미영, 정승현, 황순금 (2013). 청소년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학회, 26,** 99-122.

심미영, 황순금 (2013).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경남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7), 1-17.

심희옥 (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지영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혜미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순미, 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양점미 (2010).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은주 (1996).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우수경, 김기예 (2013). 청소년의 성, 학교급, 시험불안 및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2**(2), 165-195.

유연승 (1998).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유윤희 (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세은 (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 정체감과의 관계.** 경 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종희 (2006). 건강가정지원 사업에서 가족중심 개입을 위한 개념모형 연구;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3), 115-126.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2005). **아동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윤혜미 (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57**(3), 133-164.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의 학교적응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이규원 (2017). **영양교육 기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명심 (2015).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 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휘. (2009).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숙영 (2010).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쌍이 (2011).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예승 (2004).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여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주, 민하여, 이영미 (2004).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의 자아탄력성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원, 5**(4), 125-144.

이은경 (2012).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미 (2001).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 (2009). **아동의 생활스트레스와 보건실 이용 빈도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수 (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 15**(2), 37-62.

이지언, 정익중 (2013). 가정외보호아동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사회복지학복지학회, 24,** 219-239.

이지훈 (2012).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훈, 이보련, 진주희, 서대원, 홍승봉, 홍승철, 이문향 (2013). 간질수술을 받은 소아 환자의 신경심리학적 결과. **대한소아신경학회지, 15**(1), 35-44.

이춘오 (2006).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 비교.**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재 (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혜경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경, 김현주 (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2), 29-42.

임성균 (2012). **중학생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자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아 (2005).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임하라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성화, 최성열, 함성수 (2014).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23**(2), 183-196.

장휘숙 (2009).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정행준 (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자아존중감·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계연, 이은희 (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조명주 (2007). **학습자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한익 (2014). 초등학생의 학업,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결정성,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207-229.

주소영, 이양희 (2007). 아동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초등학교 4-6학년용. **한국아동학회, 28**(2), 91-113.

주소영, 이양희 (2011). 청소년용 탄력성(Resilience)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18**(4), 103-139.

진석언 (2010). **대안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인과적 구조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은주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선 (200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장숙 (1993).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특성이 학교생활적응이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병래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정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병래, 방은령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정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회. 24**(8), 273-304.

허봉렬 (1996).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제 3회 가정의 날 기념행사, 한국 건강가족 실천 행사,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분부.

홍봉선, 남미애 (2010).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19-42.

홍성애 (199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 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2). http://cesi.kedi.re.kr.

2016 교육과학부 보도자료(2016. 8. 30.). **2016 교육기본통계 학업중단학생 현황발표**. http://kess.kedi.re.kr/res/img/icons/disk16.gif.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39-10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Bloom, B. L. (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 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225-239.

Embark, S. (2013). Understanding Cdmmunicative Cdnpetentence. *University Bulletin, 13(3)*, 101-100

Fine, S. B. (1991). Resilience and human adaptability: Who rises above adversity? 1990 Eleanor Clarke Slagle Lecture. *The American Journal Occupational Therapy, 45*(6): 493-503.

Fredrickson, B. L., Tugade, M. M., Waugh, C. E., & Larkin, G. R. (2003). Wha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e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65-376.

Garmezy, N., & Rutter, M.(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Mc Graw-Hill.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Lewis, J. M., Beavers, W. R., Gossett, J. T., & Phillips, V. A. (1976). *No single th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 New York: Brunner/ Mazel, Inc.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4th ed.). New York: McGraw-Hill.

Otto, H. A. (1963). *Criteria for assessing family strength*. Family Process, 2: 329-338.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6), 598-611.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3): 316-331.

Schilling, R. F, Gilchrist, L. D., & Schinke, S. P. (1984).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familie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Family Relation, 33*, 47-54.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William, C. (198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Wadsworth publishing: 2ndedi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The Effect of Family Healthiness of Middle Schoolers on Adjustment of School Life : Genderically Different Mediation Effect of Ego Resilience

Kim, In-Suk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mediation effect of ego resilience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family health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s adjustment of their school life. A questionnaire method was applied for this study toward students in four middle schools, equally located at each direction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Although the total collected data equalled to 485 copies, the final relevant data of 462 was analyzed for this study due to the existence of 23 copies assumed as non or insincere response.

In order to measure adjustment of school life, the middle-and-high schoolers targeting revised scales by Lee, Kyu-Won(2017) was employed. Th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cales were originally developed by Lim, Jeong-Soon(1993), and later revised and supplemented by You, Yoon-Hee(1994) and Lee, Kyu-Won(2017), respectively.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family healthiness, the adolescent-targeting revised scales by Yoon, Se-Eun(2000) was also applied, whose original version was developed by Eo, Eun-Joo・You, Yeong-Joo(1995). The scales of ego resilience developed for adolescence by Joo, So-Yeong・Lee, Yang-Hee(2011) was applied in order to measure ego resilience.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through SPSS 23.00. In order to check out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applied. Correlation analysis was employed for identifying correlation between the each variable. In order to identify mediation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that family healthiness affects adjustment of school life,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Sobel test was also employed for testing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 effect.

The summarized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family healthiness of middle schoolers, who are in their adolescence period in terms of growth stage, has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ego resilience. Second, it was verified that family healthiness of middle schoolers has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adjustment of school life.
Third, it was verified that the ego resilience of middle schoolers has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iness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Fourth, it was verified that in case of male students ego resilience functions as complete medi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family healthiness affects adjustment of school life. Fifth, it was verified that in case of female students ego resilience functions as partial medi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family healthiness affects adjustment of school life.

The synthesized research results verify that family healthiness and ego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 adjustment of their school life in a direct way. Additionally, it was verified that the mediation effect of ego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esilience was disclosed differently with respect to sex.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ddress issues of school life adjustment in a differentiated and tailored way according to gender. Furthermore, as for adolescents suffering from school adjustment, it is practically helpful to develop various counselling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family healthiness and ego resilience rather than those focusing on their personal scop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가족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설문지는 문항에 따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문을 읽으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과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응답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될 것이오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지도교수 : 최 보 영
연 구 자 : 김 인 숙
E-Mail) insuk5094@naver.co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가족건강성】 여러분의 가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는 매우 쉽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산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족에게 말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는 서로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는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가족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가족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7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에는 다른 가족원들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극복하기가 쉽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 가족은 관심사와 취미가 같다.	①	②	③	④	⑤
33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는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자아탄력성】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활기차고 명랑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을 좋아하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생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가족에게 기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건네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6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힘들거나 슬플 때도 웃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성취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그 일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게 주어진 일을 해 낼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앞의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스스로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어떤 일이 힘들다고 금방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속상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도 내가 해야 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부정적인 감정들(화, 슬픔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맞은 때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방해를 받아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잘하는 게 있으니 열심히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학교생활의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학교생활적응】

아래 문항을 읽고 학교생활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 표시하여 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럼없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마음 속의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생님을 길에서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들은 나를 인격체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에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거의 모든 우리 반 학생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들과 내 문제 혹은 친구들의 문제를 터놓고 애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여럿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에서 발표하게 되었을 때 나는 준비한 내용을 잘 발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거의 모든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관심이 없는 과목의 수업시간에도 열심히 들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교 숙제를 우선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학교수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주번일 때 주번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세요.

1. 성별 : ① 남(　　)　② 여(　　)
2. 학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3. 귀하의 학교에서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상위권(　　) ② 중위권(　　) ③하위권(　　)
4. 아버지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 이하(　　) ② 고졸(　　) ③ 대졸(　　) ④ 대학원졸 이상(　　)
5.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중졸 이하(　　) ② 고졸(　　) ③ 대졸(　　) ④ 대학원졸 이상(　　)
6.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위이다( ) ② 중·하위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중·상위이다( ) ⑤ 상위이다(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